

현안과 과제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는 ABC(남미) 경제권

< 요약 >

■ 중남미 경제권과 ABC

중남미 경제권은 면적 20,550천 km²(세계 면적의 15%, 한반도의 93.5배)에 6억명 세계 인구의 8.5%)이 거주하며,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GDP의 8.0% 비중을 차지한다. 'ABC'는 중남미 경제의 중심이며 신흥 시장으로 부상 중인 아르헨티나(Argentina), '브라질(Brazil)', '칠레(Chile)'를 의미하며, 중남미 면적의 58%, 인구의 41%, 경제(GDP)의 57% 비중을 달한다. 1인당 GDP는 1만 ~ 1만 5천달러 수준으로 제조·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광물·농업 자원의 수출이 활발하다.

■ ABC의 성장 잠재력

첫째,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전망된다. ABC는 세계 GDP 대비 비중이 4.5%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마이너스 (-) 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7년 이후까지 4%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산업 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 비중이 높았던 광업·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물류·통신, 도소매·숙박업종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셋째, 중산층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인 중산층의 증가세가 확연해 소비시장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균 연령이 30세 전후인 젊은 국가들로서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넷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진행 중이다. 남미 경제권의 통합과 활발한 인프라 투자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ABC 국가들의 고정자본 형성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하였다.

■ 한국과의 경제 교류

한·칠레 FTA 체결 등으로 한국과 ABC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對ABC 국가에 대한 수출은 운송장비, 석유화학 IT 제품 위주이며 수입의 대부분은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직접투자 규모도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 분야도 IT, 도소매, 광업, 금속 및 운송 장비 제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 시사점

한국 정부는 정치·외교적 관계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인프라 건설, 원자재, 금융 등의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FTA 등을 감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현지 기업과의 사전 협력 강화, 틈새시장 공략을 본격 현지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중남미 경제권과 ABC

- 중남미 경제권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국가들을 통칭
 - 33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는 면적 20,550천km²(세계 면적의 15%, 한반도의 93.5배), 6억명(세계 인구의 8.5%)이 거주
 -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GDP 대비 8.0% 규모를 차지
 - 풍부한 천연자원과 원자재 수출로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안정적 성장세

- ‘ABC’는 중남미 경제의 중심이며 신흥 시장으로 부상 중인 ‘아르헨티나(Argentina)’, ‘브라질(Brazil)’, ‘칠레(Chile)’를 의미 (이하 ABC)

- ABC는 중남미 인구의 41%, 면적의 58%, 경제(GDP)의 57% 비중을 차지
- 인구의 70% 이상이 카톨릭 신자로 스페인어(아르헨티나, 칠레) 및 포르투갈어(브라질)를 사용, 1인당 GDP는 1만~1만 5천달러 수준
-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제조업(광공업)을 중심으로 광물/농업 자원 수출이 활발



< ABC 국가 개요 >

	아르헨티나 (Republic of Argentina)	브라질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칠레 (Republic of Chile)
면적	2,737천 km ² (한반도의 12 배)	8,515천 km ² (38 배)	757천 km ² (3.4 배)
인구	42백만명	190백만명	17백만명
종교	카톨릭 92%	카톨릭 71%	카톨릭 70%
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화폐	페소(Peso)	레알(Real)	페소(Peso)
GDP (성장률)	4,736억US\$(8.9%)	23,540억US\$(2.7%)	2,701억US\$(5.9%)
1인당 GDP	11,470US\$	12,090US\$	15,520US\$
산업구조	서비스 59% 제조 31%	서비스 67% 광공업 34%	제조 54% 서비스 41%

주 :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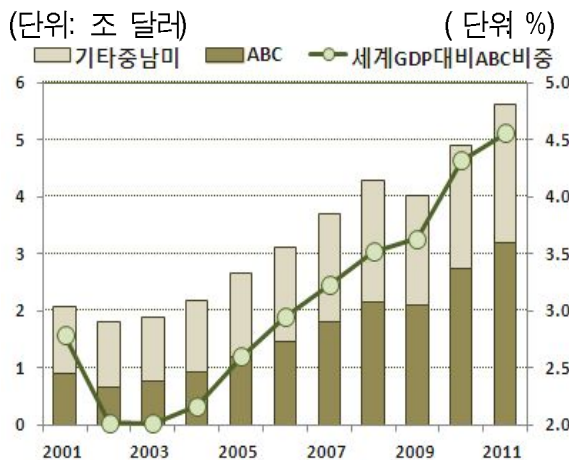
2. ABC의 성장 잠재력

○ 경제 성장

- ABC 국가들은 보유 자원 및 정부 개혁 등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신흥 유망 시장으로 부상 중
 -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이며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보이고는 있으나, 풍부한 천연 자원 및 정부의 개혁 정책 등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 회복이 기대
 - 기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낙관적인 경제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거대 소비 시장의 형성이 예상

- ABC는 세계 GDP 대비 비중이 4.5%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2000년대 초반까지 ABC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
 - 중남미에서의 경제 비중도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GDP 비중이 2005년 36%에서 2011년 63%에 달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7년 이후까지 4%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IMF)

< 중남미, ABC 국가 GDP 추이 >



자료: IMF.

< 중남미, ABC 국가 성장 전망 >

(단위: %)

	2009	2011	2013	2015	2017
중남미	-1.55	4.51	3.89	4.01	3.97
아르헨티나	0.85	8.87	3.06	3.98	4.04
브라질	-0.33	2.73	3.95	4.20	4.14
칠레	-0.89	5.92	4.45	4.60	4.60

자료: IMF.
주: GDP 성장률.

○ 산업 구조

- (아르헨티나) 물류·통신 등 서비스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
 - 물류 및 통신 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11.2%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전 산업 대비 비중은 2005년 9.0%에서 2010년 11.3%까지 확대
 - 이에 비해 전통적인 수출 품목인 농림수산업의 경우 비중이 감소

- (브라질) 도소매, 숙박, 외식 산업의 성장세
 - 브라질의 도소매, 숙박 외식 산업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18.4%에서 2010년에는 19.1%로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중이 감소한 건설업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투자 정책 활성화로 성장이 지속될 전망

- (칠레) 광업·제조 비중이 높으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
 - 칠레의 주요 수출 산업인 광산, 유틸리티 부문은 경제 비중이 17.0%로 가장 높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2%로 성장이 정체
 - 이에 물류·통신, 도소매·숙박 등 비해 서비스 산업은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면서 칠레 경제를 견인

< ABC 국가의 산업별 생산액 비중(GDP 대비) 및 성장 속도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산업 비중	연평균 성장률	산업 비중	연평균 성장률	산업 비중	연평균 성장률
농림수산	8.2%	3.5%	5.6%	3.5%	4.0%	0.7%
광산, 유틸리티	6.6%	3.3%	6.3%	4.1%	17.1%	-0.2%
제조	22.9%	6.0%	16.4%	1.9%	13.9%	0.1%
건설	4.9%	6.3%	5.0%	4.3%	6.5%	2.7%
도소매, 숙박, 외식	15.2%	7.6%	19.5%	5.3%	10.9%	5.5%
물류, 통신	11.3%	11.2%	9.1%	4.4%	10.5%	6.5%
기타서비스	30.9%	5.8%	38.2%	4.3%	37.2%	3.9%

자료: UN.

주: 산업 비중은 2010년, 연평균 성장률은 2005년-2010년 실질 GDP 기준.

○ 자원 및 인구 구조

-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면서 성장
 - 철광석, 구리와 같은 기초 광물은 물론, 리튬을 비롯한 희소 금속 자원 매장량 등이 풍부한 자원 부국
 - 곡물, 육류, 해산물 등 농수산 자원의 생산량 역시 풍부하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
- 중산층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동시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젊은 국가로 소비시장이자 생산기지로서의 성장이 기대
 - 브라질의 경우 중산층 비중이 2012년의 54%에서 2018년에는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ABC 국가들의 중산층 증가는 소비 시장의 확대를 견인
 - ABC 국가들은 평균 연령이 29~32세인 젊은 국가들로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
 - 이밖에 내전 등 국내 갈등이나 국제 갈등이 거의 없어 정치 변수에 의한 경제적 위협이 적은 편

< 주요 천연자원 세계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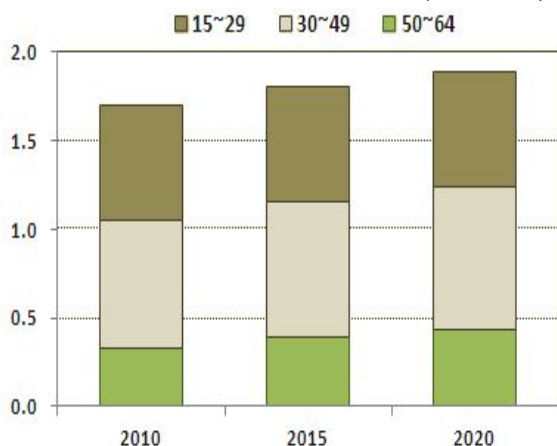
	광물자원	식량자원
아르헨티나	리튬 4위	말 6위 소 7위
브라질	철광석 2위 니켈 3위	돼지 3위 곡물 3위
칠레	리튬 1위 구리 1위	칠면조 2위 가자미 등 5위

자료: USGS, FAO.

주: 광물자원은 매장량, 식량자원은 생산량 기준

< ABC 국가 생산가능인구 전망 >

(단위: 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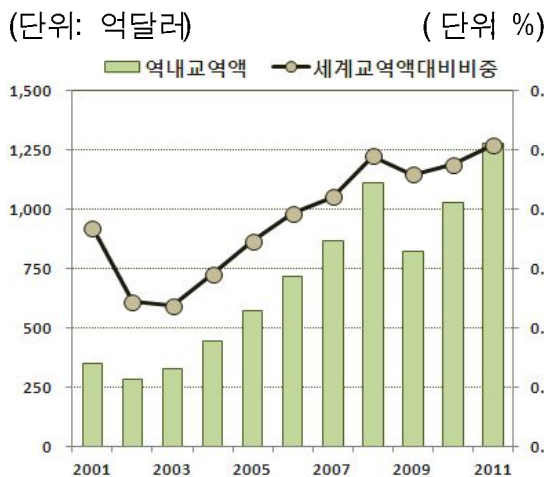
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 투자 활성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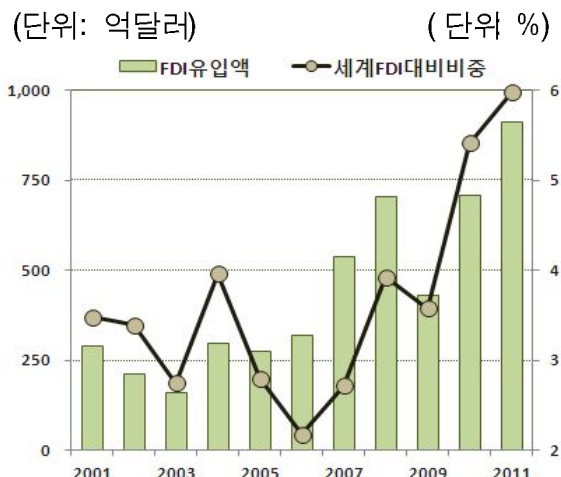
- 남미 경제권의 통합과 ABC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 국내외 정책적 변화는 향후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그동안 남미 경제를 양분했던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안데스공동시장(CAN)의 국가들이 참여한 남미연합(UNASUR)이 2011년 공식 출범¹⁾
 - 남미연합은 EU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 및 무역 장벽 철폐 등을 추진
 - 이밖에 ABC 국가들은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

- ABC 국가들의 투자 정책 및 성장 전망은 투자 규모 확대로 연결
 -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으로 ABC 국가들의 고정자본 형성액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연평균 21.2% 증가
 -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에 따른 제조 경쟁력과 내수 확대,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으로 2006년에서 2011년 FDI 유입액 연평균 증가율은 23.5%

< 남미연합 역내 교역 규모 추이 >



< ABC 국가 FDI 유입액 추이 >



자료: UNCTAD.

1)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안데스공동체(CAN) 등의 경제 협력체가 공존해 왔으나, 2011년 5월 남미 12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UNASUR가 출범을 공식 선언하며 경제 통합이 급진전

3. ABC 국가들의 주요 경제 현황

○ 아르헨티나

- (경제 특징) 2000년대 2차례 경제위기 극복 후 최근 3년간 경기 회복세

-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국 수요 급감 및 기상 악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 정치적인 목적의 보호무역과 정부지출 확대 정책으로 물가는 10%에 달하는 높은 수준, 실업률은 하락 추세이며 2011년 7.2%
- 곡물, 석유, 가스 및 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 산업선진국에 대한 1차 상품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전력·도로·가스 등 인프라 확대 추진
- 전통적으로 가족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발달

- (투자 여건) ABC 국가 중 상대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

- 정치·사회 : 영국과의 영유권 분쟁 및 스페인과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 높은 교육수준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
- 경제 정책 : 정부의 확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여 긴축정책으로의 전환 등 정책 방향성 예측의 불확실성 존재
- 조세·금융 : 2중 과세 방지 협정, 금융거래세, 환율 변동성 확대
- 기타 리스크 : 과중한 외채 부담과 낮은 대외신인도, 현지 법인 설립 장기간 소요,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인한 강성 노조, 부정부패 등

<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 지표 추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3 ^f	2015 ^f	2017 ^f
경제성장률(%)	6.8	0.9	9.2	8.9	3.1	4.0	4.0
경상수지(십억달러)	6.0	7.5	2.5	-0.3	-0.4	-6.5	-10.7
물가상승률(%)	8.6	6.3	10.5	9.8	9.7	9.8	9.8
환율(페소, US1\$, 평균)	3.1	3.7	3.9	4.1	.	.	.
실업률(%)	7.9	8.7	7.8	7.2	7.2	6.7	6.6

자료: IMF, World Bank

○ 브라질

- (경제 특징) 빠른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대로 기회의 국가로 부상 중
 - 경제 전망 기관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2027년 브라질을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의 부상을 예견
 -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주 대륙 최대의 생산 기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 시장이 급성장
 - 2003년 45.1%였던 중산층 이상 계층은 2014년에는 71.0%까지 증가할 전망, 이러한 계층 구조 변화는 소비재, 서비스 상품 등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리우, 상파울루 등 동남부의 시장 성장이 기대

- (투자 여건) 국가시스템 확장 등 성장 정책과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상존
 - 정치·사회 :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주변국으로의 전이 가능성, 대외거래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 정책 리스크
 - 경제 정책 :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으로 항만, 철도 등을 포함한 물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자국 산업의 정책적 특혜 제공
 - 조세·금융 : 환율 및 물가의 동시 안정화 부담, 고정환율제로의 전환, 금융 거래세(토빈세, 현재 6%) 대폭 인상 등 해외자본 유출입 제한 리스크
 - 기타 리스크 : 근로자들의 낮은 보안 의식²⁾, 심한 빈부 격차(월 수입 100\$ 미만 빈곤층이 인구의 30%) 등

< 브라질의 주요 경제 지표 추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3 ^f	2015 ^f	2017 ^f
경제성장률(%)	5.2	-0.3	7.5	2.7	4.0	4.2	4.1
경상수지(십억달러)	-28.2	-24.3	-47.3	-52.5	-70.1	-95.4	-108.1
물가상승률(%)	5.7	4.9	5.0	6.6	4.9	4.5	4.5
환율(레알, US1\$, 평균)	1.8	2.0	1.8	1.7	.	.	.
실업률(%)	7.9	8.1	6.7	6.0	6.5	7.0	7.0

자료: IMF, World Bank

2) Cisco Systems.

○ 칠레

- (경제 특징)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 2004년 한국을 포함, 총 50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개방경제
- 글로벌 경기둔화로 원자재 가격 및 수출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진 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2011년 5.9%의 경제성장 기록 (2012년 상반기 6.2%)
- 풍부한 자원 보유국으로 구리 등 국제원자재 수요 변동이 경기 및 환율 변동으로 이어지는 대외 변수에 민감한 경제구조
- 실업 및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3% 수준의 물가안정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한 기준금리 조정 및 수출·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
- 자유무역국가로 극심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 시장³⁾의 특징

- (투자 여건) ABC 국가 중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

- 정치·사회 : 인적자원의 교육 수준 및 생산성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뇌물 관행이 약하고 정책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편
- 경제 정책 : 외국인에 대해 특정 지역 투자시 인센티브 부여, 투자 허가 취득이나 회사 설립 등에서 자국 특성의 제도 운영(현지 변호사 활용 필요)
- 조세·금융 :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 금융시스템 안정,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조세제도가 정착
- 기타 리스크 : 내수시장 협소,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로 국내 생산품 및 수입 제품간 경쟁 치열, 노동의 양과 질이 지역간 편차가 심함

< 칠레의 주요 경제 지표 추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3 ^f	2015 ^f	2017 ^f
경제성장률(%)	3.1	-0.9	6.1	5.9	4.4	4.6	4.6
경상수지(십억달러)	-5.8	3.5	3.3	-3.2	-8.8	-9.0	-10.2
물가상승률(%)	8.7	1.5	1.4	3.3	3.0	3.0	3.0
환율(페소, US1\$, 평균)	3.1	3.7	3.9	4.1	.	.	.
실업률(%)	7.8	10.8	8.2	7.1	6.9	6.9	6.9

자료: IMF, World Bank

3) 600만 산티아고 거주 구매력 70~80% 차지

4. 한국과의 경제 교류

○ 외교 관계

- 한국과 ABC 국가들은 1950년대 말 수교 이후 협력 관계 유지
 - 1959년 브라질, 1962년 아르헨티나, 칠레와 수교를 맺었으며, 각 국가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
 - 칠레는 1949년 중남미 국가 최초로 한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였으며, 1960년대 중후반 ABC 국가들의 상주 대사관이 서울에 설치되어 운영 중
- 한국 교민의 ABC 국가 이주 역사는 100년에 이르며, 특히 최근 한국과 ABC 간의 인적 교류 확대에 ABC 국가의 한국 입국자 수 역시 급증
 - ABC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7만여 명으로 주로 의류 및 봉제, 도소매업의 종사 비중이 높음
 - ABC 국가의 한국 입국자 수가 2006년 1만 명에서 2011년 2만 명으로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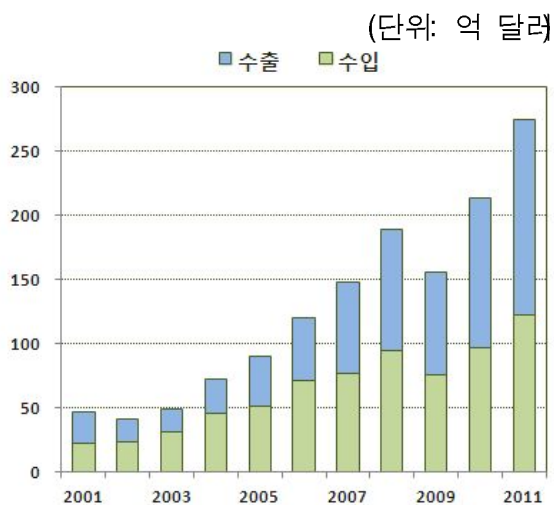
○ 경제 교류

- ABC 국가들의 빠른 경제 성장, 한·칠레 FTA 체결 등으로 한국과 ABC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가 빠르게 확대⁴⁾
 - 한국과 ABC 국가 간의 교역액은 2001년 47억 달러, 2011년에는 275억 달러로 연평균 19.4% 증가
 - 동기간 브라질과의 교역액은 연평균 20.8% 증가했으며, 칠레와의 2011년 교역 규모는 FTA 체결 직전인 2003년 대비 4.6배로 증가
- 한국의 ABC 국가에 대한 수출은 운송장비, 석유화학, IT 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며, 수입의 대부분은 원자재로 구성

4) 아르헨티나 : 2011년 기준 한국 수출 대상국 중 55위, 수입 대상국 중 42위로 흑자 교역국이었으나 2012년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의 강력한 수입 규제 정책으로 적자 교역국으로 전환
 브라질 : 수출 11위, 수입 19위의 흑자 교역국
 칠레 : 수출 33위, 수입 26위의 적자 교역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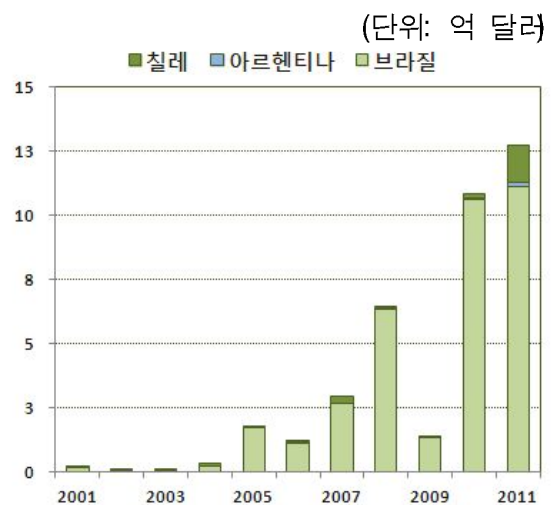
- 2011년 한국의 對 ABC 국가 3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선박, 석유 제품으로 이들 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8%
 - 동기간 한국의 3대 수입 제품은 철광석, 구리, 구리 제품으로 전체 수입액 가운데 이들 제품이 60.0%를 차지
- 한국의 직접투자 규모 역시 브라질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
-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한국의 對 ABC 국가 FDI는 연평균 48.7%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기준 對 브라질 FDI가 87.4%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2011년 對 아르헨티나 FDI가 2001년 대비 2.8배, 對 칠레 FDI는 2003년 대비 26.4배 증가하는 등 ABC 국가에 대한 투자가 증대
- 2000년대 중반까지 IT 및 도소매업 중심의 투자에서 광업, 금속 제조, 운송 장비 제조 등으로 다양화
- 2001년에서 2005년 누적 기준 한국의 對 ABC 국가 전체 FDI 중 IT 및 도소매업이 60.4%를 차지
 - 2000년대 중반 이후 광업 투자 급증, 금속 및 운송 장비 제조업 투자 증대로 이들 산업의 비중은 2001년~05년 21.7%에서 2006년~11년 74.7%로 급격히 확대

< 한국의 對ABC 국가 교역 추이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ABC 국가 직접투자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5. 시사점

○ 소비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성장 잠재력 보유

- **(내수시장)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재 수요가 급격히 확대**
 -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교통 및 소비시장, 자원 및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스포츠 이벤트 개최 효과 등 성장잠재력 내재
 - IT 산업 등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성장, 대형 쇼핑몰과 PB 시장 확대로 소비심리가 개선 중
 - 아르헨티나는 빈곤층 증가로 저가 상품 선호가 높은 반면, 브라질과 칠레는 품질과 기술을 중시하는 고급화 등 소비 경향 차별화가 뚜렷
- **(생산기지) 수입 규제 강화 정책 경향으로 현지 생산기지화 투자 확대**
 - ABC 국가들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자국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 규제 강화 정책을 병행
 - 수요 파급 효과가 크며 진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SOC 시설 사업 등 정부 정책 투자 시장 선점 노력이 필요
 - FTA 등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제조업의 경우 현지 조립 생산으로 수입 규제를 회피

○ 인프라 건설, 원자재, 금융 등의 신사업 기회 모색

- **인프라** : 정부 주도로 에너지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인 가운데 특히 민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배전 시장은 시장 진출의 기회
- **물류** : 육운 인프라 및 내륙 수운 항만의 민간 투자 유치 등 사업 참여의 기회가 확대
- **자원** : ABC 국가들은 광물 자원 외에도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며, 특히 정부는 민간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상황
- **금융 등** : 경제 성장 및 소득 증대에 따라 금융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교육 등 기타 서비스 산업들의 수요 증대 역시 기대

○ 투자 환경 및 다양한 리스크 파악

- 진출 형태 :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현지 법인 설립이나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유리, 법인 설립시에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을 선호
- 외국인 투자 제도 : 중앙 및 지역 정부들은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므로 투자시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특혜를 부여하는 경향
- 안정성 확보 : 자산 동결 등에 의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투자 안정성 보장 확보 필요
- 현지화 : 현지 인력 고용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확대, 지역경제에 봉사 활동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을 강화
- 기타 리스크 : 정치·사회·조세·금융·인적자원 등에서 각 국 특유의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회피 노력

○ 정책적 지원 및 기업의 노력

- 한국 정부는 정치·외교적 관계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경제 사절단 지속 파견, 국가간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확대
- 특히 공적원조(ODA)나 경제 발전 지원금 등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 민관 합동 프로젝트 및 시장 개척단 확대
- 기업은 FTA 등을 감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현지 기업과의 사전 협력 강화, 틈새시장 공략을 본격 현지 진출 교두보로 활용 **HRI**

백홍기 수석연구위원 (hkback@hri.co.kr, 02-2072-6228)

김필수 선임 연구원 (pskim@hri.co.kr, 02-2072-6238)